



2013 8

마산고등학교 제21회 동창회

통권 제344호

발행 : 우용태 010-9301-2223 / 총무 : 김석백 010-5488-9871
편집:제갈선광 010-5146-4925 / mail : chegal44@gmail.com



悲歌 / 신창한



초여름에 내린 폭우가 계절의 감각도 잃었나보다. 아파트 앞에 흐르는 광려천 물길도 유유히 흐른다. 너무도 많은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 우린 인생의 석양에 서있네.

젊은 시절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왔지만, 지금은 지나간 추억을 되씹어 본다.

酒時만 되면 통술집에 모여 맥주 한잔 하던 그 많던 동기들, 이젠 그 자리에 그들을 볼 수 없구나. 그곳엔 친구도 있었고 여인도 있었고 젊은 날의 낭만도 있었고, 술 한 잔에 호기도 부리고 우정을 나누며 음담패설도 하고…….

'N'을 만난 것은 그녀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이였다. 맥주 한 잔 하자던 친구에게 끌려간 그곳은 옛 영흥극장 옆 아담한 주점이였다. 이른 시간이라 다른 손님은 없었고 은은하게 음악만 흐르고 있었다.

우리와 마주한 그녀는 고교시절 등갯길에 마주치던 참 아름답고 도도하면서도 밝았던 얼굴, 단아한 자태의 여고생. 그러나 내 앞에 앉은 여인은 세월 속에 지친 여인으로 변해 있었다. 몇 잔 술에 우린 노래를 불렀고 순서에 따라 그녀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아~, 그녀의 노래 '백치 아다다'. 고교시절 영화주제곡을 라디오에서 들으며 흥얼거리던 노래. 그 슬픈 이야기 바로 그 노래. 정말 그녀는 그 노래에 몰입이 되어 흐느끼듯 청승스럽게 마치 스스로를 절규하듯 불렀다.

그녀는 몇 년 전 남편을 보내고 세 자매의 엄마로서 생활전선에 뛰어든 게 주검 이란다. 흐르는 노래 속에 발버둥치는 아다다가 그녀의 인생 삶처럼 느껴져 애잔 한 마음을 맥주 한 잔으로 달래어 보았다.

그런 후로 나는 자주 그녀의 술집에 들러 함께 그 지친 여인의 친구가 되어 ‘ 초여름 산들바람....’ 백치 아다다를 함께 부르며 맥주잔을 마주치기도 하며 슬픈 아다다를 술잔에 담았다.

어느 여름밤 적당히 마신 술김에 그녀를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신마산까지 어깨를 감싸고 함께 걸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비친 창백한 얼굴은 우리들이 읽었던 소설 속의 여인 백치 아다다였다.

길가 벤치에 앉아 하드 두 개를 나눠 먹으면서 한번 안아볼까 하고 수작을 걸 었다. 한참을 나를 바라보던 그녀는 “먹고 맛없더라고 친구들에게 소문내려고?” 그래, 우린 친구로서가 더 좋은가 보다. 나는 담배 한 대에 불을 붙여 그녀에게 건 네고 나도 한 대 입에 물어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허공에 흰 연기만 날리고 말았다.

어느 날 그녀도 사랑하던 지아비 곁으로 갔다. 삼성병원 영안실이라며 그녀의 친 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내가 문상을 가야 하나...? 그들의 친구와 가족이 나를 어 떻게 볼까? 나는 그녀를 안아보지도 않았는데.....

오해 받을 필요 없다며 그녀의 영결식장에 가지 않았다.

* * *

아직도 술집에서, 노래방에서 그녀의 슬픈 아다다의 영혼이 내게 다가온다. 해후 를 불러달라던 그녀가.....

*초여름 산들바람 고운 불에 스칠 때
검은 머리 금비녀에 다홍치마 어여빠라
꽃가마에 미소 짓는 말 못하는 아다다야
차라리 모를 것을 짧은 날의 그 행복
가슴에 못 박고서 떠나버린 님 그리워
별 아래 울며 새는 검은 눈의 아다다야*

아, 그녀가 그림다.
지친 영혼이여, 이제 평안하기를.....

정정합니다.

신임 재경동창회장 송일성 동문의 휴대폰번호
010-5321-1511은 010-5312-1511입니다.

본부동창회 계좌 : 김석백(국민은행) 651401-04-343779

재경동창회 카페 : <http://cafe.daum.net/mshs21>



요즘같이 마른장마 더운 날씨에는 역시 간단한 보신용으로 회장단에서 미리 삼계탕메뉴선택을 잘했다는 마음으로 중성동 백제령 별관2층을 1시간 반 동안 전세를 낸 결과 오후 6시30분에 우회장이 간단한 월례회 인사를 하자마자 먼저 온 동문들은 다 잘 잡숫고 이야기들 다 끝내고 더운 타인지 슬그머니 흩어져 가는지라 그래도 아쉬워 박소학, 변중일, 제갈선광, 총무와 가장 늦게 참석한 송인창, 이성환 동문과 함께 박소학 동창의 미국이민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배 나라 감 나라하다 보니 어느 듯 옆 좌석까지 손님이 차지하자 할 수없이 앉아있는 좌석을 내어주고 입구마당 둥근 테이블로 내려와서 그래도 못 다한 이야기가 아쉬워 백제령 주방에서 서비스로 주는 음료수와 커피를 마시면서 남은 이야기들을 마저 하고 아쉽게 헤어지다.

참석자(46명)

- 강수성 곽영식 구해룡 김기정 김기현 김범영 김석백 김선규 김성규 김순철
 김순택 김용인 김정수 김준형 김채열 김태욱 박소학 박영환 배복기 배종길
 변재웅 변중일 손기홍 송인창 신창한 여경현 우용태 이무일 이대우 이복렬
 이성환 이아인 이영부 이종섭 이종량 장영의 정안정 정의건 정정용 정창봉
 제갈선광 조남규 지해경 최광수 황희생 김동열(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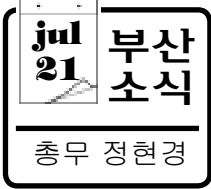
본부동창회 수입지출내역			2013년 7월		
수입		지출			
적요	금액	비고	적요	금액	비고
회비	680,000	이상호 최건일 각15만원	식대	736,000	백제령삼계탕
		제갈선광 10만원	회보	210,000	회보인쇄비
		이아인 8만원		51,210	발송비
		김범영 신창한 여경현 정정용 각5만원	기타	40,000	신구회장단(적금재계약)
			수당	150,000	총무
기타(협찬)	20,000	박박중(서울)			
수입계	700,000		지출계	1,197,210	
전월이월	4,889,577		차기이월	4,392,367	
합계	5,589,577		합계	5,589,577	

웃짜코너

편리한 화장실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남편이 화장실 간다고 나갔다가 들어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화장실을 편해. 화장실 문만 열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니 말야!"
 그러자~~!!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또, 냉장고에다 샐시?!!!!"





더위를 이기는 장사는 없다
 그렇다면 더위를 대적하는
 입장에서 더위를 벗삼아
 즐기는 대상으로
 한다면 어떻게
 화염경)의 핵심사상에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란
 말이 있다
 인간은
 어떤 힘든 상황에서라도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교훈을 떠올려 본다

지난 7월14일 천성태의 자녀 혼사에 많은 친구들과 함께 마산의 김용인도 함께하는 축하의 식전이 되었고 혼주로 서도 감사의 답례로 금일봉을 동기회에 찬조하였다. 참석 친구들의 뒤풀이 잔치가 온천장에서 이어졌는데 이 자리에는 오랜만에 하만웅이가 참석하여 그간 불참의 회포도 풀고 따로 고기 불판 자리도 마련하면서 앞으로 툼툼이 동기회 발전에 동참하겠다고 언약했다. 21일, 일요일이지만 18명의 친구들이 참석한 동기회가 서면의 여름철 소문난 보양식 전문식당 ‘오광집’에서 가졌다.

이의승 회장은 “여름철 특별한 건강관리로 항상 즐거움을 나누자”고했고, 천성태가 자녀 혼사에 성원을 보내 주셨음에 고마움의 인사도 했다. 이어서 친구들의 건강 동정과 일본 여행 준비과정, 마산 본부에서 발송하는 부산 친구들의 회보수신자에 대한 의견들을 교환하여 정비하기도 했다.

참, 신기한 현상 하나. 여름철 보양식단을 주문했는데, 절대적 13명이 ‘보신탕’ 대신 ‘전복삼계탕’을 선택하는 게 아닌가? 왜 그럴까…….

만나면 그렇게 반가운 얼굴이 되고, 만나면 그렇게 시원한 대화로 박장대소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면 얼마나 좋으랴. 찝통의 8월엔 시원시원한 그런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기다려야겠다.

참석자(18명)
 강신평 권기옥 김수곤 김수용 김준태 김지남 남원일
 문호기 박청길 이강복 이의승 이장우 정현경 조창식
 조창제 천성태 최진화 황선치

회보제작에 협찬해주신 재경 재부동창회에 감사합니다.
 각지역 신입회장단은
 2013년도 회보제작분담금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담금 내역 : 재경동창회 : 100만원
 재부동창회 : 60만원

김학영의 가림삼방 :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khyO21>

편집인의 사진블로그 : <http://wing91.tistory.com>

마고21회동문 대마도 산행 및 관광여행 안내

2013. 11. 1 ~ 3(2박3일)

일시	2013년11월1일~3일(2박3일)
행선지	일본 대마도 일원
여행사	백두산등산클럽(055-296-3738, 팩스 055-295-3738)
집행 및 예약	김성규(010-5577-6636, 팩스 055-241-3365)
경비	35만원/1인당(부대비용 없음)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집결	08:00 부산국제여객터미널 ※ 마산지역출발 : 2013년11월1일 07:00
일 정 표	
1일	09:30 부산 출항 - 11:40 대마도 도착 아리아케(유명산 558m 3시간) 등반 후 관광
2일	시라타케(백악산 519m 4시간) 등반 후 관광
3일	전 일정 관광 후 13:30 히타카츠 출항 - 14:40부산도착
※ 마산도착은 17시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집행자 김성규(쌤지) 동문에게 문의바람	

중국 구체구/모니구/황룡 관광여행 안내

2013. 11. 7 ~ 12(4박6일)

일시	2013. 11. 7~12(4박6일)
행선지	중국 구체구 / 모니구 / 황룡 / 낙산대불 등
여행사	백두산등산클럽(055-296-3738, 팩스 055-295-3738)
집행 및 예약	2013. 9. 30까지 김성규(010-5577-6636, 팩스 055-241-3365)
출발	13:00 마산출발, 20:00 인천공항출발
경비	89만원(부대비용 없음)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일 정 표	
1일	2013년 11년 7일 20:00 인천공항 출발
2일	중국 성도 도착 - 구체구 이동
3일	구체구 전 일정 관광
4일	구체구 출발, 송판고성, 무현 경유 성도 도착
5일	성도 출발, 낙산 대불관광, 낙산, 성도 귀환
6일	00:20 성도 출발 4:30 인천 도착(마산도착 11:00 예정)
※ 마산출발 : 마산역 13:00(관광버스)	



FotoGallery

- 루마니아 인민궁전 -

북한의 김일성과 호형호제하던
 독재자 차우세스쿠가
 평양의 김일성 주석궁을 보고
 반해 본따 지은
 초호화판 궁전으로
 단일 건물로는 미국무성
 펜타곤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번째라 한다

정영기

늦게 글쓰기를 시작해, 관심과 호기심일 뿐 능력이나 지속가능성조차도 스스로가 믿을 수가 없는데, 이 당선의 영광으로 시인의 반열에 서게 되었으니, 위험한 미담의 험로에 들어선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미래지향적 논조나 이치 구현의 문장은 기대할 수 없음은 스스로 인정하는 나의 능력이다. 다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내온 날들의 나와 주변 사람들의 삶의 단면 혹은 이모저모를 글로 써 보는 것이 현재의 바람이다. 그래서일까, 언젠가 누군가의 물음에, 나의 글쓰기는 오는 날들을 외면하기 위한 복고적 몸부림이라고 대답한 일이 생각한다. 그 옛날 당시로서는 아프고 슬픈 일들이 오늘에 와서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과 함께 다 그리움의 대상이니, 나의 비좁은 머리랄까 능력은 소재로서의 지난날들로 이미 차버렸고, 나의 표현능력 또한 회고적이거나 복고적인 소재에 어찌면 걸맞다 할 매우 한정된 폭이지만 서정적 수단으로, 詩의 방식이 적절한 것 같다.

글쓰기가 즐겁지만 고통을 수반하는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은, 대다수가 동의하는 말인 것 같다. 그렇다. 고통 없이 어찌 남모르는 즐거움을 얻으랴. 시 쓰기의 고통과 즐거움이 교차하는 가역의 창을 열어준 지도 교수님께, 이 창을 더욱 활짝 열어 존경과 감사의 표상으로 우선 삼고자 합니다.

동문동정 · 총동창회 · 모교소식

- ♣ 박박중 동문
동문의 휴대폰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010-2508-8808
 - ♣ 정영기 동문
동문께서 제25회 문파문학에 발표한 5편의 시로 신인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 ♣ 허호 동문
동문의 휴대폰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010-3744-4304
- 시인의 반열에 당당하게 오른 자랑스런 동문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재경동창회 계좌 : 임흥무(외환은행) 16918-00128-3

臥薪嘗膽(와신상당)

고사성어

원수를 갚으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참고 겪음.

옛날 오왕 부차가 쉼 위에서 잠을 자면서 월왕 구천에게 패한 설움을 설욕하였고, 구천 역시 쓴 쓸개의 맛을 보면서 부차에게 다시 복수를 하였다는데서 유래한 성어

산따라 길따라 **8쪽에서 이어짐**

아름다운 식귀가 목판에 새겨져 있어 다시 한 번 음미를 해 본다.

-산을 보며-

늘 그렇게 / 고요하고 든든한 / 푸른 힘으로 나를 지켜 주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 / 나의 삶이 메마르고 / 참을성이 부족할 때
 오해 받은 일이 역을하며 / 누구를 용서할 수 없을 때 / 나는 창을 열고
 당신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 이름만 불러도 희망이 되고
 바라만 보아도 위로가 되는 산 / 그 푸른 침묵 속에 / 기도로 열리는 오늘입니다
 다시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읽고 서 있는 동안 친구들을 놓쳐 미아가 될까봐 옆에서 끝까지 지켜주는 알뜰함을 아끼지 않는 서종성친구가 고맙기 그지없다.

뒤쳐진 걸음을 만회하려 바빠 길을 내리면 왼편길은 이북5도청 1km, 북한산 둘레길(평창동). 오른쪽 길은 흥은동이라는 팻말이 서 있고 다시 오르는 길에는 자연석이 깔끔하고 조금 더 가다보면 오른쪽에 넓은 바위가 쉬어가라 하지만 친구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달린다. 뒤 따라 올라보니 작은 돌문이 보이는데 안내문에는 「탕춘대성암문」 이라는데 탕춘대란 연산군 때 연회를 한 장소를 말한다고 한다. 허리를 굽혀 작은 성문을 나서면 오른쪽으로 상명대까지는 0.8km, 왼쪽 길은 둘레길과 향로봉 2km, 이북5도청은 0.8km를 알리는 팻말이 서 있고 조금 더 오르면 친구들의 1차 쉼터라는 넓은 터에 먼저 온 친구들이 자리를 폈다.

권영집 친구가 희한하게도 우산대를 빼낸 천을 펼치고 그 위에다 간식거리를 차려 삶은 계란을 제공 하였고, 이석우 친구가 또 질세라 예쁘게 생긴 작은 토마토와 바나나로 배를 채우게 했다. 그 중에 하나씩 까먹은 계란껍질이 잘게 벗겨진 걸 본 주영국 친구가 계란을 잘 삶으면 껍질이 부서지지 않고 훌륭한 잘 벗겨진다고 자랑을 했으니 다음부터는 삶은 계란 담당이 주영국으로 바뀔지 모를 일이다. 말을 해 놓고 보니 부담이 되는지 주섬주섬 배낭을 챙기며 자리를 피한다. 하나둘씩 배낭을 챙겨 메고 길을 재촉하여 북한산 외성 성곽을 따라 마사토길을 완만하게 오르다 왼쪽으로 보이는 족두리봉을 이석우 친구는 유두봉이라고 우기드니 오른쪽의 사자능선이나 보현봉에서 바라보면 풍만한 젓가슴과 젓꼭지가 힘줄까지 불끈 솟은 기막힌 풍경이라며 볼 때마다 침이 흐른다고 흥분을 감추지 않는다. 성곽을 따라 한참을 가다보니 과연 말 그대로 미끈하게 솟아오른 젓가슴이 수놈들의 가슴을 한번쯤은 뛰게 만든다. 감탄을 하며 보고 또 봐도 싫지 않으나 갈 길이 바빠 아쉽게 발길을 돌리며 10여분을 오르면 팻말이 오른쪽은 구기동 0.9km, 직진하면 향로봉 1.3km, 그리고 비봉은 1.9km라고 알려주며 앞길에는 문을 닫은 안내소가 초라하게 서있다.(다음호에 이어짐)

원고접수 E-mail : chegal44@gmail.com

“오케이”

딸네 집에 와서는 녹번이 어디에 붙었는지 알 수가 없어 지하철 노선도를 출력하여 가는 길을 익히고는 다음날 아침에 길을 나섰다.

1시간을 타고 녹번역에 내려 2번 출구 작은 대합실에 들어서니 서종성 친구, 허호 친구, 조재호 친구, 권영집 친구, 이석우 친구, 이상환 친구, 박용시 친구

서해안으로의 여행과 (2) 장정치
죽두리봉

구들이 먼저와 반갑게 맞아주니 역시 친구들이 좋다는 걸 새삼 느끼게 해준다. 조금 기다리다 주영국 친구와 도킹을 하고 출구를 나와 길을 잡는데 나는 그저 어딘지도 모르겠고 친구들의

등짝만 따르다 보니 산길 초입이 자연석을 깬 완만한 계단길이 이어지고 10분 쯤 오르니까 팻말이 길안내를 해준다.

왼쪽으로 700m가면 헬기장이 있고 오른쪽으로 900m가면 풍림APT가 나온다. 몇 발자 위에는 쉼터에 운동기구들이 즐비했고 또 조금만 오르면 팻말이 손을 벌리고 서 있다. 직진하면 조망명소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북한산이란다.

이곳에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철봉과 평행봉이 세워져 있고 직진하여 조금만 오르면 평지에 장군바위는 50m, 조망명소는 70m라는 팻말이 있다. 금세 장군바위와 조망명소를 만나면 멀리 관악산을 위시하여 인왕산과 북악산이 허리를 길게 펼쳐 북악스카이웨이라는 별칭을 얻은 시원스런 능선이 한눈에 들어온다. 눈이 시리도록 구경을 하고 마사토길을 완만하게 걷다보면 나무테크계단길이 열리고 계단위에 올라서면 다른 조망명소가 또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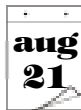
죽두리봉을 시작으로 향로봉, 비봉, 보현봉 등 8개 봉우리가 마치 보디빌더들 처럼 제각기 근육질을 자랑하고 서있다. 이어지는 내리막길에는 직진하면 흥제동으로 빠지니 왼쪽 북한산 둘레길로 가라고 이정표가 친절하게 길 안내를 해준다. 얼마가지 않아 작은 계단길을 지나면 마사토길을 산허리를 감아 돌고 조금 내리면 쉼터에 닿는다. 쉼터 옆에는 이해인 수녀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7쪽으로 이어짐 -

2013년 8월 월례회 안내

월례회

본부동창회 8월 월례회는 연례와 같이 쉽니다.



부인회

본부부인회 8월 월례회 쉽니다.